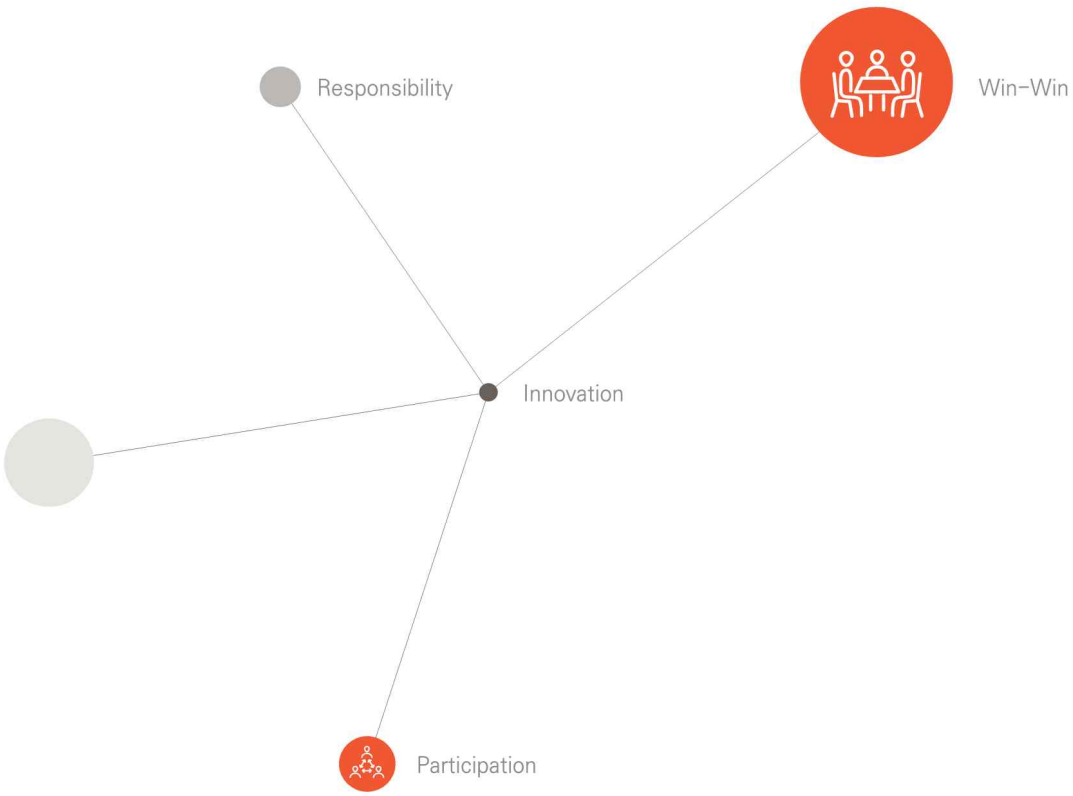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7월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목 차

1. 스페셜 이슈 ····· 3

2. 해외시장 동향 ····· 14

3. 국내시장 동향 ····· 23

1

스페셜 이슈

1. JWC: 2021 글로벌 전시산업 실적 및 향후 전망

가. JWC GmbH

- JWC는 2008년 쾰른메쎄의 전 회장이자 UFI 의장으로 활동했던 요헨 비트(Jochen Witt)가 설립한 독일의 무역전 및 국제회의 비즈니스 전문 매니지먼트 컨설팅사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30곳 이상 국가·지역의 MICE 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글로벌 전시컨벤션 업계에서 전문성 있는 컨설턴시로 인정받고 있음

- 특히 무역전 및 국제회의 가격전략 수립을 통한 전시 효율 극대화 및 브랜드 강화, 시장분석 및 브랜드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전시컨벤션 기업 조직구조 컨설팅 등 전시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설팅 이외에도 과포화되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베뉴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전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계획(Venue Planning)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전시컨벤션 업계에 속한 다양한 주체 및 상황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음

1) 2021 글로벌 전시산업 실적 및 전망 보고서[1)]

- JWC는 전통적으로 글로벌 전시업계에 대해 '글로벌 전시산업 실적 및 전망 보고서(GIPR, Global Industry Performance Review)'를 발간해왔으며, 글로벌 전시산업 거시경제 지표, 대륙별·국가별 전시산업 실적 및 전망 분석, 전시업계 전망 및 트렌드 분석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

- 특히 2021년 전시산업 실적 및 전망 보고서에서는 국제 전시업계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시장을 신규 분석 지역으로 포함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속 전시업계의 향후 비전 및 사업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방향성 제안 등의 내용을 구성하였음

1) 본 고는 'Global Industry Performance Review 2021'(JWC, 2021) 및 '2021년 글로벌 전시산업 실적 및 전망 발표'(전시저널, 202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2) 주요결과 요약

- JWC의 2021년 전시산업 실적 및 전망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분석내용은 글로벌 전시업계 현황, 국가별 전시업계 현황, 2022년 및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업계 전망 등으로, 이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 및 예측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1> 'Global Industry Performance Review 2021' 주요내용 요약

연번	분류	세부 내용	
1	글로벌 전시업계 현황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산업이 유발하는 글로벌 GDP 규모는 2019년 대비 3.3%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백신 보급 및 온라인화로 인해 전시산업 글로벌 GDP가 2020년 대비 6.0% 증가하였음	
2	국가별 실적 · 전망	독일	국제전시 시 해외업체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
		이탈리아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전시업계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
		영국	국제전시 시 해외업체 의존도가 낮아 타 유럽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예상
		중국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타 국가에 비해 가장 적어 빠른 회복세를 예상
		미국	무역전시 참가업체 대부분이 자국 업체임에 따라 회복세가 유럽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
3	업계 전망	상당기간 동안 전시산업은 지역 내, 국가 내 전시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채택할 가능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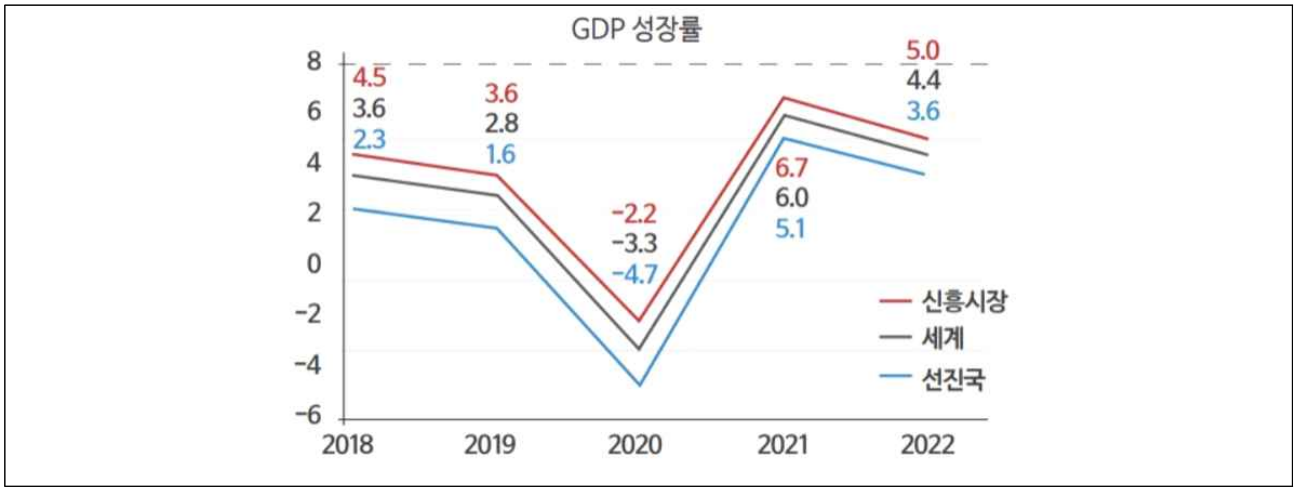
나. 주제별 분석 결과

1) 글로벌 전시업계 현황

▌ 전시산업 유발 GDP 분석

-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국제전시는 취소 및 연기되었는데, 이에 따라 2019년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전시산업 유발 GDP 성장률은 2020년 -3.3%를 기록하며 급격한 감소세에 접어들었음

- 반면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전시컨벤션 업계에서도 대다수의 업체들이 '디지털 전환'을 실시하여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가 늘어나면서 침체기였던 2020년 대비 6.0% 증가한 GDP를 기록, 가파른 회복세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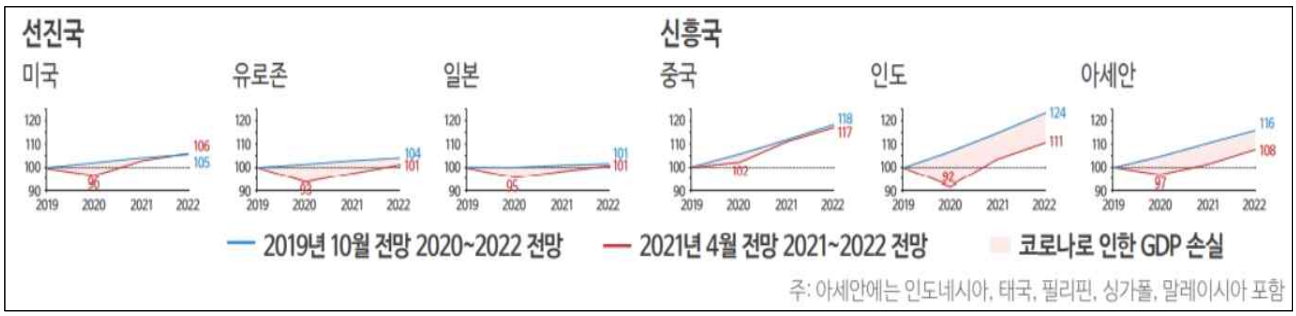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전시산업 GDP 성장률 현황 및 예측

- 한편 JWC는 2021년 전시산업 유발 GDP 규모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맞지만, 성장률이 아닌 실질적인 전시산업 GDP 규모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10월 경 전문가들이 예측한 '2019년 대비 2020년~2022년 전시산업 GDP 규모'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1년 4월에 예측한 '2019년 대비 2021년~2022년 전시산업 GDP 규모'를 비교하였으며, 그 차액 규모만큼을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GDP 손실이라고 분석하였음

- 해당 분석을 적용한 결과 미국 전시산업의 2020년~2022년 3개년 누적 손실 GDP 규모는 2019년 미국 전시산업 GDP의 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유럽의 경우 2019년 유럽 전시산업 GDP의 17%, 일본은 8%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 또한 중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2022년 누적 손실 GDP 규모가 2019년 전시산업 GDP의 7.5%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인도는 2019년 대비 43.5%의 손실을, 아세안 지역은 24.5% 가량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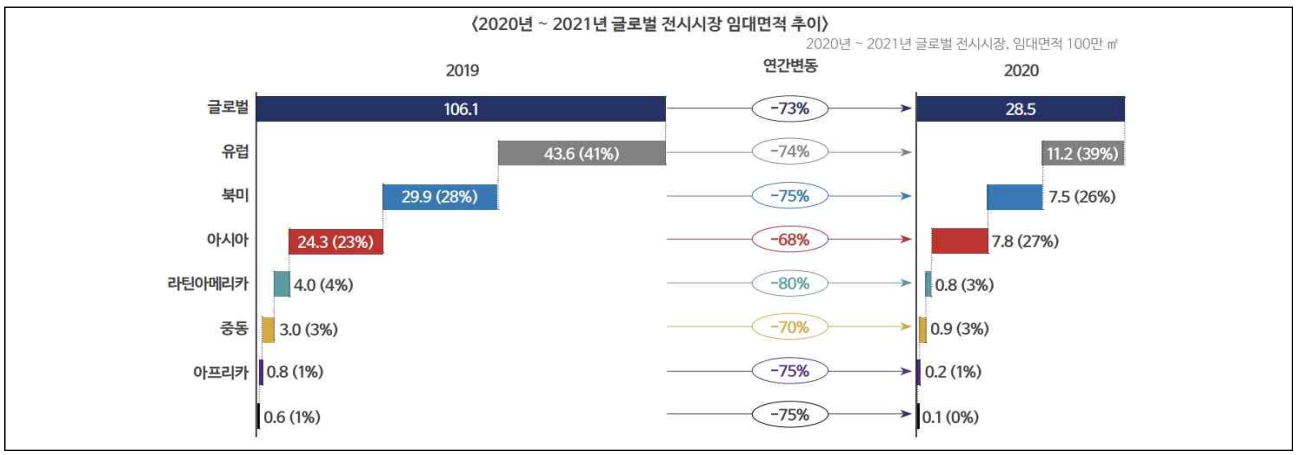


[그림 2] 시기별 · 지역별 글로벌 전시산업 GDP 규모 전망 비교

▌ 전시시장 임대면적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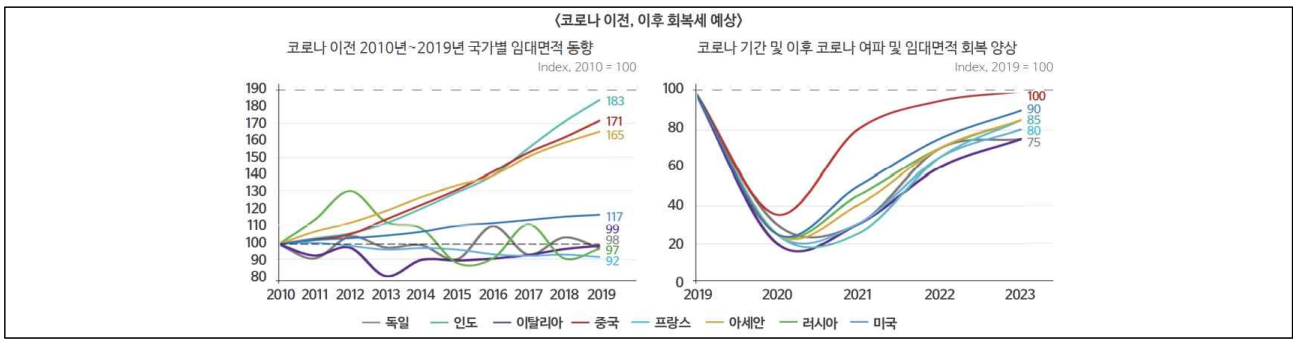
- 전시업계 실적 및 현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전시시장 임대면적 자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업계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전 세계적으로 1억 600만㎡의 전시공간이 임대된 반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2,850만㎡의 전시공간이 임대된 것으로 조사되어 1년 새 전시임대면적 규모가 73%가량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대륙의 경우 2019년 4,360만㎡에서 2020년 1,120만㎡까지 전시임대면적 실적이 74% 감소했으며 북미에서는 2,990만㎡에서 750만㎡까지 75% 감소했고, 아시아는 2,430만㎡에서 780만㎡까지 68% 감소하였음



[그림 3] 2020년~2021년 글로벌 전시시장 임대면적 추이

- 한편 JWC는 자체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글로벌 전시시장 임대면적 규모가 언제쯤 2019년 수준까지 복구될 수 있을지 예측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세계 전시산업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던 신흥 전시컨벤션 강국 중국이 2023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19년 수준의 전시면적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



[그림 4] 국가별 전시임대면적 회복 전망

2) 국가별 전시산업 현황 및 전망

▌독일

- 독일 전시시장은 성숙기에 다다랐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전시 참여사들의 참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기보다 현재 국제적인 위상을 지닌 전시 및 국제회의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모든 주요 KPI(임대면적, 참관객 및 참가업체 수, 전시회 수) 부문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매출 향상의 주요 요소는 가격 인상, 서비스 확장, 해외전시 주최 및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로 한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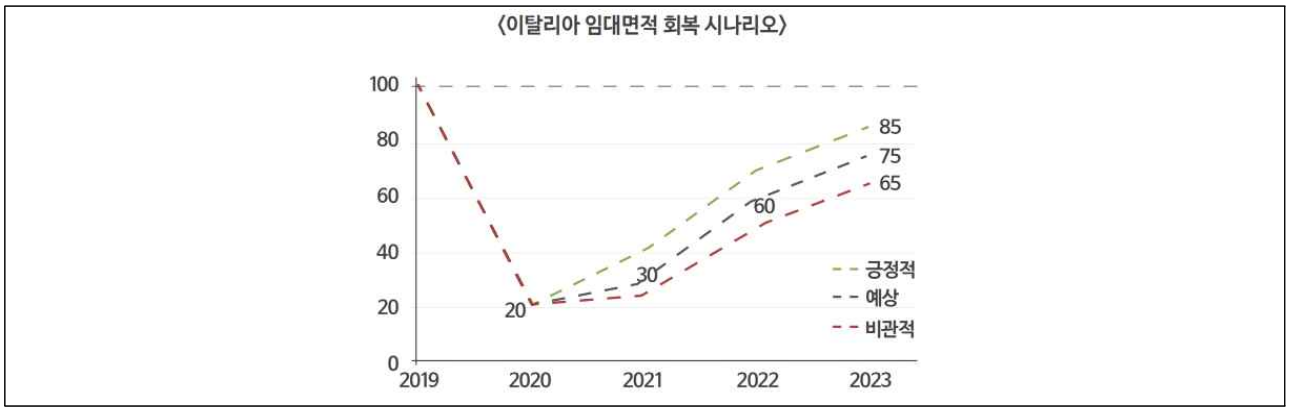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제전시 참여사가 감소해 지역화·국내화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으로 수출지향적이고 외국 참여사들에 의존적인 형태를 지닌 독일 전시산업에 침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23년까지 2019년 전시면적의 65%~85%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독일 전시업계 임대면적 현황 및 예측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전시업계는 식음료, 패션, 인테리어, 미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시가 주류를 이루며, 2년 또는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전시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다년간 국제화를 위해 전시업계가 다방면으로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한편 코로나19 이후 이탈리아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으나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시업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대부터 이어져 온 하락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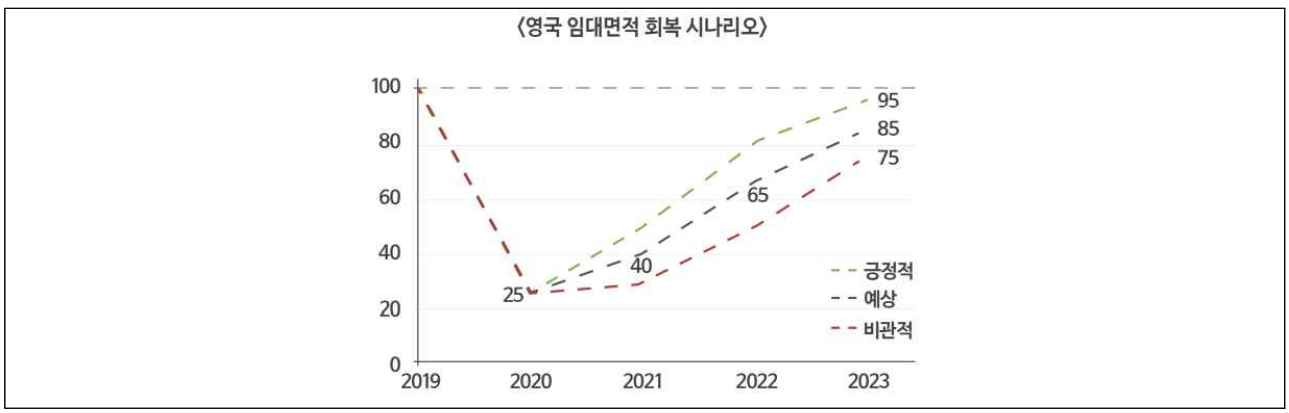


[그림 6] 이탈리아 전시업계 임대면적 현황 및 예측

▮ 영국

● 영국 전시업계의 경우 전시회 참가업체 중 국내 기업 비율이 높고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특징을 지니며, 브렉시트 이후로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명성과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국내 기업들을 목표 고객으로 삼고 '전시의 국내화' 추세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국제적 참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으로 인해 영국 전시업계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는 타 국가들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도 더 빠르게 나타나 2023년에는 2019년 실적의 75%~95% 수준까지 임대면적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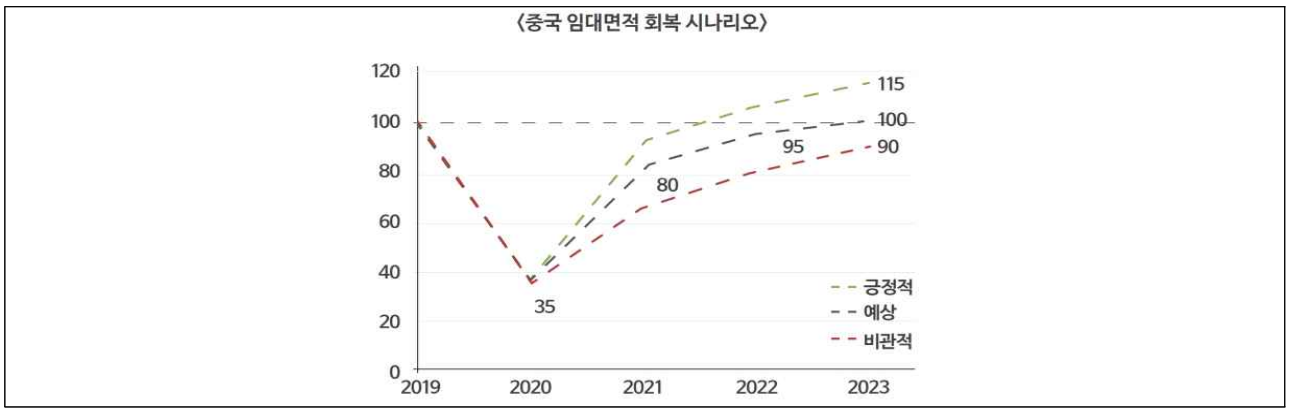


[그림 7] 영국 전시업계 임대면적 현황 및 예측

▌중국

-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전시산업의 규모는 지난 10년 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막대한 규모의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들은 물론 자국 내 중소기업들까지 수많은 업체들이 중국 내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해 전시에 참여하는 데다 엄청난 인구수에 기반한 소비자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전시산업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은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실시했으나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영업소 및 자회사를 통해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대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 주요 무역·전시 국가들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규모가 가장 적었으며, 전시규모 회복 역시 빠르게 이루어져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90%~115%의 전시면적 임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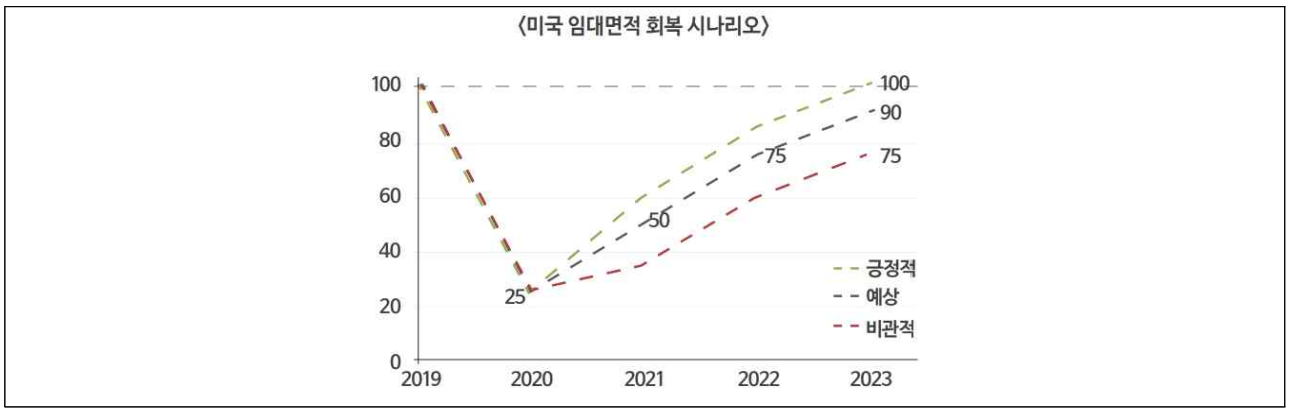
[그림 8] 중국 전시업계 임대면적 현황 및 예측

▌미국

- 미국 전시산업은 지난 10년 간 주요 KPI(임대면적, 참관객 및 참가업체 수)가 꾸준히 성장해왔고, 부스 규모 증대 및 가격 인상 등을 통해 매출규모 역시 증가하였음

- 미국 전시산업의 경우 대부분을 해당 산업의 협회가 주최하는데, 산업 및 업종에 대한 분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주제 및 산업에 대해 미국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각 도시 및 지역마다 이러한 전시컨벤션 수요를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두고 매년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시장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 한편 미국 전시산업의 주요 참가업체들은 주로 자국 내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전시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전시산업의 해외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편이며, 고객들의 대면 행사 참여에 대한 거부감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전시산업 규모는 무난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75%~100% 수준의 전시면적 임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그림 9] 미국 전시업계 임대면적 현황 및 예측

3) 전시업계 전망

▌ 지역 전시회, 국내 전시회 선호 현상 발생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제한 및 여행에 대한 두려움, 기업들의 인력 파견 어려움, 참관객 및 참가업체에 대한 제약요건 등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국제전시들은 참여사 모집 및 방문객 모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스 규모 및 전체 전시 규모 역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해외 기업 참여 및 외국인 관객 방문 등의 유입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기업 및 방문객을 위주로 운영되어오던 전시회들은 코로나19 여파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지역 수준 전시회 및 국가 수준 전시회가 더욱 늘어나는 한편 참가업체 및 참관객 수가 제한된 전시회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전망

▌ 전시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옴니채널(Omnichannel)' 비즈니스 모델 대두

- 코로나19 이전에도 전시컨벤션 업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실제 보급률 및 활용 실적은 저조한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전시업계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전환의 경우 팬데믹 이전부터 세계화가 둔화됨에 따라 공급망에 대한 국유화 추세가 재점화된 바 있는 데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세계 각국이 여행제한 및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출장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을 통한 대면 참가가 어렵고, 디지털 상호작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마케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시업계의 적극적인 활용 및 현장 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전시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대면 행사 및 전시를 포기하고 온라인 환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전시회와 디지털 도구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를 유발하는 '옴니채널(Omnichannel, 다중채널)'로 변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시회의 온라인 부분과 현장 부분의 기능 및 구성요소 간의 데이터·정보 동기화를 추진하고 단일 플랫폼을 통한 관리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전시컨벤션 행사를 옴니채널화한다면, 무역 전시회의 주요 기능들이 오프라인 행사 중에만 운영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행사 전후로, 또는 연중무휴로 고객에게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전시회의 사전·사후관리 기능을 분담한다던가, 플랫폼을 통한 참가자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 업계 커뮤니티 및 전시 간의 연계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0] 옴니채널(Omnichannel) 형태의 전시산업 비즈니스모델 예시

2

해외시장 동향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국: 차이나스타, MICE 산업 종사자 재취업을 위한 대안으로 프리랜싱 제시

- '차이나스타(China Star)'의 창업자 리우 핑(Liu Ping), '프리랜싱(Freelancing)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업을 잃은 MICE 산업 종사자의 재취업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프리랜싱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 차이나스타그룹: 중국의 PCO 기업으로, DMC 및 여행사 사업분야에도 진출해 있으며 현재 중국 내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관광 업계에서 손꼽히는 브랜드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 차이나스타는 프리랜싱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뒤 MICE업계에 재취업을 준비 중인 MICE 산업 인력들에게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올해 프리랜싱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상시 출근하는 인력 규모는 줄이고, 프리랜서 채용을 통해 종사자들이 재택근무 방식으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을 재편하였음
-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의 경우 일반 고용형태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그 대신 기업은 종사원들을 위해 대신 납부하던 보험비를 줄일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기업에는 고정비용 감축의 효과를 유발
- 또한 이벤트 기획자, 동시통역사 등 MICE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프리랜서와 관련된 법률, 계약, 보상 등에 대해 교육하는 '인사 워크샵(HR Workshop)'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ICCA의 도움을 통해 프리랜서 고용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할 계획
- 리우 핑, '프리랜싱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줄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

▌괌: 괌정부관광청, 강화된 MICE 지원정책 발표

- 괌정부관광청, 7월 11일 '2022 하반기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 업계지원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MICE 지원 정책을 크게 강화할 계획

- 해당 지원정책의 경우 방문객 규모에 따라서 지원사항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선 MICE 행사 목적으로 괌을 방문하는 50인 이상의 그룹에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에코백 및 가이드북 등 괌 기브어웨이(Giveaway)를 기본으로 제공할 예정

- 또한 200인 이상의 MICE 행사 단체의 경우 'MICE 행사 기획사 재정 지원' 조항을 적용하여 행사 인원 1인당 10달러(한화 약 1만 3,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300명 이상의 그룹에 대해서는 행사 일정 중 참가자들에게 유니크한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괌 차모로 전통 공연'을 제공

- 한편 300인 이상의 그룹의 경우 'MICE 행사 기획사 재정 지원' 조항과는 별개로 PCO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며, 300인 이상일 시에는 3,000달러(한화 약 390만 원), 500인 이상일 시에는 5,000달러(한화 약 650만 원)를 지급

- 괌정부관광청, 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MICE 산업 성장을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가로 모색하고 코로나19 회복 시기 본격적인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

[그림 11] 괌정부관광청 MICE 지원정책 안내

▌ 태국: 태국 컨벤션·전시 뷰로(TCEB), MICE 행사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 간 연계 추진

- 태국 컨벤션·전시 뷰로(The Thail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Bureau, TCEB), 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핵심산업과 전시산업 간 연계를 추진한 결과 2022년 38개, 2023년에는 67개의 전시회를 유치했다고 발표

- 현재 태국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지원 중인 '국가 핵심 산업'은 스마트 전자, 물류 및 항공, 바이오연료 및 생화학, 로봇공학 등 12개 산업으로 무역, 투자, 연구 등 다방면에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무역전(Tradeshow)이나 국제회의 등 대규모 비즈니스 활동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한편 태국 컨벤션·전시 뷰로(TCEB)의 국가 핵심 산업-전시 산업 간 연계 전략은 국가 핵심 산업의 대외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에 '태국 국가산업'이라는 특색을 부여함으로써 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아시아의 주요 MICE 목적지와 행사 유치 경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시너지가 발생하여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태국 컨벤션·전시 뷰로(TCEB)는 국가 산업과 연계된 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국에서 실행되는 전시의 경제효과 측정을 지원하고 전시 생태계를 강화하는 '프로 리그 캠페인(Pro League Campaign)'을 개최

  - 경제효과 측정 지원: 무역전의 규모나 참가자 수보다 수익률에 초점을 두어 행사가 기획자에게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프로 리그 캠페인(Pro League Campaign)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전시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기술 향상·기술 재배치 및 교차 기술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역 MICE 산업 이해 관계자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2023년까지 글로벌 표준 인증을 갖춘 전시산업 종사자 25명을 육성하고 신규 전시 론칭 및 기존 전시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역 내 MICE 산업 회복세 돌입, 지속가능성 트렌드 반영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침체기를 맞이하였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MICE 업계, 최근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 완화 및 국가 간 교류 확대 등으로 인해 회복세에 돌입했으며 침체기 동안 업계 관심사로 떠오른 지속가능성 관련 트렌드를 운영방식에 반영

-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의 경우 회복세에 힘입어 2022년 2분기 기준 약 300여 건의 대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으며, 2024년까지 51건의 컨벤션, 76건의 전시 등 총 127건의 대면 행사가 예약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행사 공간에 대한 수요가 빗발치고 있으며, 적절한 베뉴의 공간을 빠르게 선점하고자 하는 행사 기획자들이 많은 탓에 기존에 자주 진행하던 가격 협상 절차도 생략하고 높은 금액에 공간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아 컨벤션센터 실적 회복 속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각종 행사의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는 등 트렌드를 반영하였으며, 시설 내에는 'AI 파워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19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 방역조치, 항공권 가격 및 숙박비 인상 등 MICE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 각종 저해요소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하려면 2024년은 되어야 한다고 분석

[그림 12]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전경

나. 미주 지역

▌ 미국: MICE 업계, 2023년 중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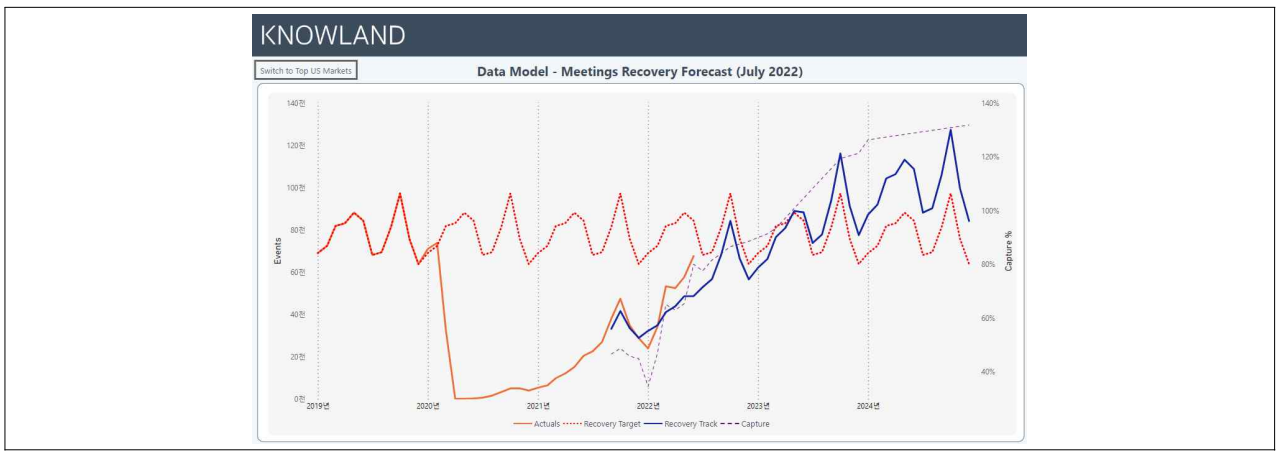
- 국제회의 데이터 전문기업 노우랜드(Knowland), 미국 내 MICE 주요도시 25곳의 국제회의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모델을 통해 미국 MICE 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은 2023년이 될 것으로 분석

- 노우랜드가 4월 동일한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했을 당시 MICE 산업은 2022년 말까지 기존의 58.3%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분석에서 2분기 중 크게 개선된 MICE 산업 실적 자료를 모두 투입하면서 회복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22년 말까지 기존의 72.1%, 2023년 말까지 106.3%, 2024년 말까지 115.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회복될 전망

- 4월에 예측값과 7월까지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예측치보다 빠르게 회복된 도시는 애틀랜타, 시카고, 덴버, 디트로이트 등 11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예측치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도시는 휴스턴, 필라델피아, 피닉스, 워싱턴D.C. 총 4군데로 나타남

- 한편 7월 예측에서는 피닉스, 댈러스, 탬파베이, 내쉬빌이 2022년 말까지 2019년 수준의 MICE 산업 개최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3년 말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 도시는 마이애미, 샌디에이고, 워싱턴 D.C. 등 7곳으로 나타남

- 미팅의 종류로는 기업미팅이 73.2%의 점유율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5월 평균 참가자 수 123명, 6월 평균 참가자 수 117명 등 중소규모 행사가 주로 개최되고 있고, 주요 행사 주제는 관광-기술-금융-교육-컨설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노우랜드 미팅산업 회복 예측 모델

▌ 미국: 라스베이거스, '2022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7월 12~14일 개최

- 미국 라스베이거스, 볼로냐피에레 그룹(Bologna Fiere Group) 및 미용전문가협회(Professional Beauty Association)과 함께 '2022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를 개최, 총 47개국 1,100여 개의 브랜드가 참가하고 3만 2,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려든 것으로 집계

  - 볼로냐피에레 그룹: 1967년 미용박람회인 '코스모프로프 볼로냐'를 개최한 이후 코스모프로프라는 전시 브랜드를 전 세계로 확대하여 2022년 현재 볼로냐, 라스베이거스(코스모프로프 북미), 뭄바이(코스모프로프 인도), 홍콩·중국(코스모프로프 아시아)까지 진출하고 정기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 해당 박람회에서는 고객층을 완제품 수요자와 유통망 수요자 두 가지로 분류하고 해당 고객들을 위한 전시공간 역시 분리하여 특성화된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안배하였으며, 뷰티테크 기업, 흑인 전문 뷰티기업, 친환경 브랜드, 피부케어 체험 등 특성화된 기업 및 콘텐츠를 모아 '특별 구역'으로 구성하여 방문객들의 편의와 관심사 충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음

- 또한 뷰티업계 관련 교육의 기회도 함께 제공되었는데, 코스모프로프의 북미 담당자들이 10개 이상의 세미나를 통해 창의성과 영감, 비즈니스 등에 대해 논하는 컨퍼런스인 '코스모토크(Cosmotalks)',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노하우나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관리 기법을 강연하는 '기업가 아카데미(Entrepreneur Academy)', 원재료 유통부터 제작-1차·2차 포장-공급망 및 뷰티테크로 이어지는 뷰티산업 전반의 종사자들이 발표를 진행하는 '코스모팩(Cosmopack Education)' 등이 큰 인기를 끌었음

[그림 14] 2022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행사장 전경

다. 구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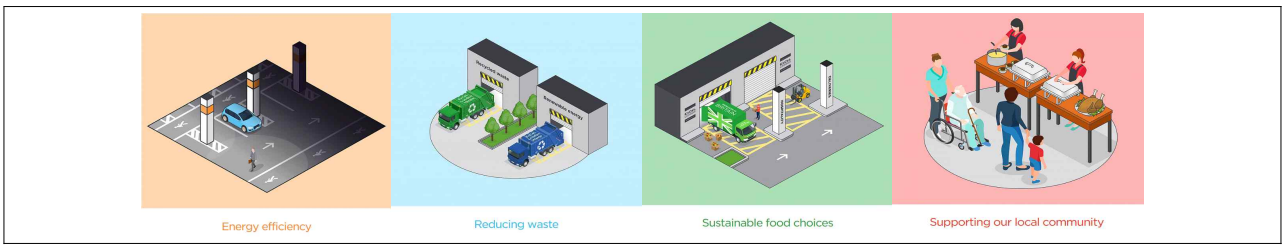
▌ 독일: 2023년 세계 국제 산업안전보건 전시회 'A+A 2023' 개최

- 독일 뒤셀도르프, 산업안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 전시회 '에이플러스에이(A+A)'를 오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힘
  - A+A 전시회는 격년을 주기로 개최되는데, 2021년도의 경우 팬데믹으로 국가간 이동 제약이 따랐음에도 전 세계 55개국 1,189개 참가사, 2만 5,268명의 방문객이 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음
- 2023년 전시회에서는 전세계 메가 트렌드인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을 메인 테마로 다룰 예정으로,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 전 세계의 신제품과 혁신적 솔루션이 대거 출품될 전망
  - 특히 개인보호 분야는 개인보호장비(PPE), 작업복, 웨어러블로봇, 스마트 개인보호장비, 작업장 내 안전 장비 및 시설,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루어질 전망
- 한편 A+A 전시회 개최 시 국제회의인 'A+A 콩그레스'를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 37회 콩그레스 당시에는 5,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운집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전시회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가 진행되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음

[그림 15] 2023 세계 국제 산업안전보건 전시회 'A+A 2023'

▌영국: 엑셀 런던(ExCel London), 탄소중립시설 인증 취득

- 영국 런던에 위치한 대형 컨벤션센터인 엑셀 런던(ExCel London), 7월 29일 전세계 유일의 탄소중립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의 PAS 2060 탄소중립 기준을 통과하고 탄소중립시설 인증을 취득하였음
  - 엑셀 런던: 약 100,000m^2 규모의 부지에 65,000명이 한번에 입장 가능한 이벤트홀부터 최소 50명~최대 7,000명이 입장 가능한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G20 정상회담,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7개 종목 등을 개최한 런던 대표 전시·회의시설
- 엑셀 런던은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성 강화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
  -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 엑셀 런던은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를 태양에너지 등을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조명을 친환경 LED로 절감하여 기존 전기 사용량의 70%를 감축하였음
  - 쓰레기 저감(Reducing Waste) : 엑셀 런던은 '매립폐기물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프로젝트를 실시, 약 95%의 현수막 및 환경장식물들을 PVC 성분이 없는 재질로만 제작하여 100%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노 플라스틱(No Plastic)' 캠페인을 실시하고 연간 200,000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 사용을 감축하였음
  - 지속가능한 음식(Sustainable Food Choices) : 엑셀 런던은 컨벤션센터 케이터링 메뉴에서 붉은 육류 비중을 50% 감축하였으며, 비건·채식주의 메뉴 및 영국 현지의 계절과일 및 채소를 도입하여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고,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바이오 연료로 활용하고 있음
  - 이외에도 지역사회공헌, 잔여 음식 및 가구 기부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강화 활동을 진행 중으로, 엑셀 런던은 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가스·연료·하수·폐기물을 비롯해 심지어는 직원들이 출퇴근 시 발생하는 탄소까지 모두 상쇄할 정도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게 되었음
- 엑셀 런던의 CEO 제레미 리스(Jeremy Rees)는 지속가능성이 최우선과제라고 설명하며 탄소배출량 저감은 '할수있으면 좋은(nice to have)'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right to play)'일이라고 강조하였음



[그림 16] 엑셀 런던의 지속가능성 강화 활동 카테고리

3

국내시장 동향

3. 국내시장 동향

▌서울: 국제박물관학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7월 14~15일 양일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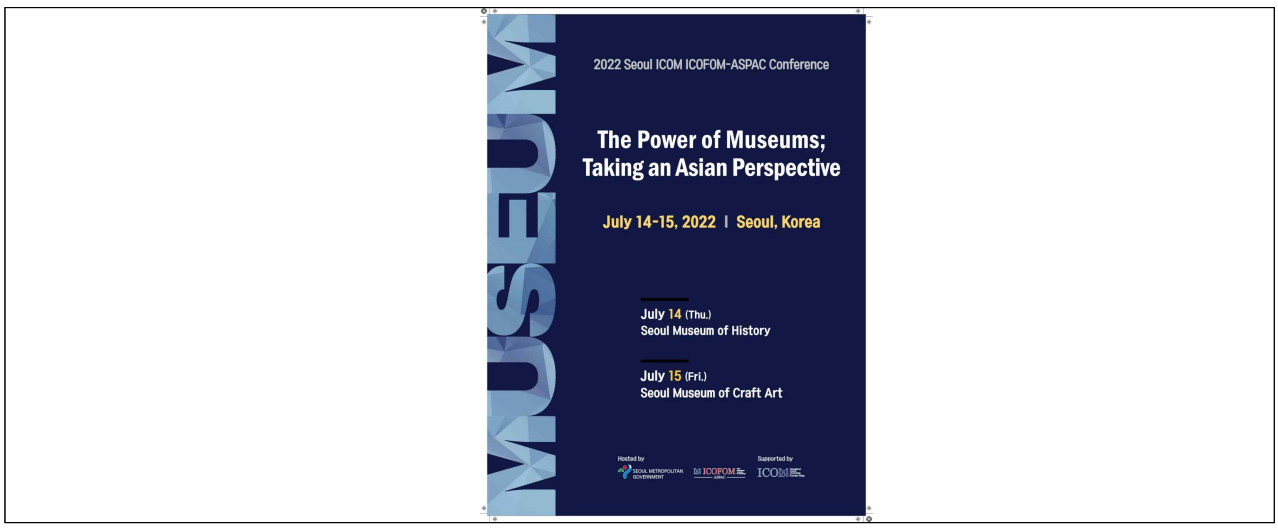
- 서울시 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과 함께 7월 14일~15일 2일간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박물관학위원회(ICOFOM)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를 진행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 유네스코의 협력기관 중 하나로, 1946년 창립되었으며 박물관을 통해 교육, 학술, 문화 등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국제기구로 산하에 국제박물관학위원회(ICOFOM)이 소속되어 있음

- 이번 회의는 '박물관의 힘; 아시아의 관점에서'라는 주제 하에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조강연으로는 비서구적 관점에서 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힘에 대해 강연하고 미래 박물관의 원천이 되는 박물관 윤리 및 실행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이외에도 첫 세션에서는 '박물관과 박물관을 둘러싼 환경'을 주제로 서울시 문화시설 추진단 및 ICOFOM 전·현 위원장 등이 발제를 진행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박물관장들과 및 ICOFOM 상임이사진 등이 '환경변화에 대한 박물관의 도전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공유 및 발표했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세션 1~2의 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 또한 2일차에는 라운드테이블 세션을 진행, ICOM 한국위원회 및 ICOM 박물관 정의위원회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박물관의 새로운 정의'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했으며 12단계에 걸친 박물관 정의 개정 과정을 소개하였음



[그림 17] 2022 서울 국제박물관학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 행사 포스터

▌ 경기도: 성남시, 2022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참가기업 60개사 모집

- 경기도 성남시, 10월 개최될 '제5회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과 관련하여 해당 행사에 참가할 기업 60개사를 7월 31일까지 모집, 참여 대상기업은 의료서비스, 컨시어지, 숙박, 의료 및 의료기기, 관광, 뷰티, 방역 등과 관련된 국내 업체로 제한

  -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2018년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현재 5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성남시에 위치한 1,700개 의료기관 및 1만 9,100여 명의 의료인력에 기반해 부스전시 및 팸투어, 수출상담회 등을 실시하고 의료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능 수행

- 이번 참가기업 모집에서 선정된 기업은 세계 각지 20개국의 바이어 80여 명과 함께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전시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주최측은 참가기업에게 전시 부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품안내서 제작, 통역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

- 한편 성남시는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 앞서 국내 의료기기·뷰티·헬스케어 관련 24개 기업 및 독일·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25개국 51개사를 화상으로 매칭시켜 주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수출상담액 40억 원 상당의 성과를 기록했음

[그림 18] 2022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상반기 비즈니스 상담회 현장

▌ 인천: 인천관광공사, 주요 MICE 주최자 초청 인천 팸투어 실시

- 인천시-인천관광공사,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국내 주요 포상관광 여행사, 학·협회 등 관광·MICE 관계자 30명을 인천으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음

- 이번 팸투어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된 '2022 찾아가는 MICE 설명회'의 후속사업으로, 송도·영종·개항장 일대의 시설 답사 및 관광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와의 비즈니스 상담 등을 진행하였음

  - 1일차에는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및 회의실, 가상스튜디오 및 스마트마이스라운지 등을 소개하였으며, 영종도의 초대형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답사를 진행한 뒤 2023년 오픈 예정인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컨벤션시설, 실내워터파크, 야외 테마공간 등에 대한 소개 시간을 마련해 신규 베뉴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

  - 2일차에는 아쿠아스파 씨메르, 월미바다열차, 개항 e지투어,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등 이색적인 관광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이외에도 PCO-호텔-체험시설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 만찬을 개최하고 비즈니스 상담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음

- 인천관광공사, 향후 인천 MICE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팸투어를 통해 국내 주요 MICE 관계자들에게 인천의 매력을 직접 경험토록 할 계획

[그림 19] 2022년 주요 MICE 주최자 초청 인천 팸투어

▌부산: 부산시, 7월 13일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제1회 국제관광도시 포럼' 개최

- 부산광역시-한국관광학회, 7월 13일~14일 부산 벡스코 및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1회 국제관광도시 포럼'을 개최

-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 포럼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담론 형성을 위한 장으로 14일부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한국관광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부산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음

- 부산시는 해당 포럼을 통해 국내외 관광분야 학자와 전문가 등에게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을 알리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초석으로 활용할 예정

-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부산시 및 중앙정부 부처관계자, 관광전문가 및 지역 업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해당 개회식 화면을 벡스코 행사장에도 그대로 송출하여 벡스코에 모인 국내외 관광분야 학자 및 전문가 1,500명을 대상으로 생중계하였음

-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학 티모시 정(Timothy Jung) 박사가 '스마트 기술을 통한 국제관광도시의 미래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안젤린 탕(Angeline Tang) 싱가포르관광청 한국사무소장이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한 미래 관광이미지 재구축'이라는 주제의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현장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음

[그림 20] 2022 제1회 부산국제관광도시포럼 개회식 현장

▌부산: 아시아교류협회,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 및 경제 포럼 개최

- 아시아교류협회,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부산 한화리조트 및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제9회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 및 '한-아세안 경제포럼'을 개최

-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은 2019년 개최되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는 후속사업으로, 한-아세안 청년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2020년 1월 개최된 모의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치, 안보, 경제 등을 중점으로 하는 분과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

- 한편 한-아세안 경제포럼의 경우 대한민국과 아세안 청년들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에서 만 19~29세 청년 58명이 참여하였고,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폐회식을 가지며 디지털 경제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의제로 공동성명서를 발표

- 또한 한-아세안 경제포럼에 참석한 청년 중 대표단 20명은 아세안 청년 고위급 회의체인 SOMY(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Youth) 추천을 통해 선발되어 해외에서 비대면으로 참석하였음

- 2010년 처음 시작된 이래 전세계 국제기구·정부·기업 등에 종사하는 8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한-아세안 경제포럼에는 기존 포럼에 참여했던 선배 참가자가 글로벌 멘토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함께 제공되었으며, 12월 청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동문회를 진행할 예정

[그림 21] 한-아세안 경제포럼 폐막식

▌ 광주: 국내 두 번째로 세계중소기업협의회 국제회의 유치 성공, 2023년 개최 예정

- 광주시, 국내에서 두 번째로 2023년 세계 중소기업협의회 국제회의(ICSB World Congress) 개최 도시로 선정

-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 중소기업협의회 이사회에서 광주는 경쟁 도시인 미국 샌디에이고를 제치고 내년 행사 장소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18년~2019년 유치를 시도한 이래 4년 만의 결실

  - 세계 중소기업협의회 국제회의는 1955년 처음 개최된 이래 2022년까지 67회째를 맞이하였으며, 2023년 광주 개최 시 국내에서 2009년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개최가 될 예정

- 광주시는 해당 행사를 2023년 7월 9일부터 1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약 400여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기업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입안자, 교수 등 총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해당 행사로 인해 생산유발 76억 원, 고용유발 45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광주시, 광주시가 호남권을 대표하는 MICE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하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글로벌 MICE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임을 강조

[그림 22]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실사단 방문 당시의 모습